

국가브랜드를 높여 줄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세계대회

강 종 일 / 2011년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세계대회 조직위원장 / 대한수의사회 부회장

세계 각국은 각종 국제대회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경우 국가브랜드 향상은 물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 각국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주도적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외화벌이가 될 국제대회 개최는 직접 방문한 그 나라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련분야를 발전시키며, 새로운 고용을 창출합니다.

특히 관련분야 대회 참가자들은 자국에서 사회적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층으로 개최 국가 및 도시의 홍보, 마케팅 유발 효과가 크며, 이들이 관광, 체류비 등으로 쓴 외화는 자동차 수백, 수천 대를 수출한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2011년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세계대회(World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World Congress, WSAVA 2011) 한국 개최 조직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1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릴 '제36차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세계대회'에 80여개 가입회원국에서 약 4,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천연 자연유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제주도만의 매력적인 독특한 문화, 짜임새 있는 격조 높은 학술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영원히 잊지 못할 인상적인 대회로 치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WSAVA 세계대회 유치가 우리나라로 확정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세계소동물수의사회 본부 평가단은 개

최 희망국인 한국,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를 실시한 결과, 접근성 등에서 월등한 '말레이시아를 지지한다'고 WSAVA 총회 15일전에 미리 발표를 했었습니다. ICC JEJU는 주변의 편의 시설과 접근성 등이 경쟁국보다 아주 취약했던 것입니다.

WSAVA 2011년 개최지 투표 당일,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총회에 참가한 69개국 78개 단체 대표들은 이미 WSAVA 본부가 말레이시아 지지를 결정했던 탓에 우리 유치준비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2002년 WSAVA 스웨덴 총회 때 회원국 가입 신청을 한 뒤, 이듬해 정회원국이 되어 매년 WSAVA 총회에 참석을 해 오면서 각국 대표들과 친분을 쌓아왔고, 매달 소식지를 발행하여 발송해 왔음에도 WSAVA 본부 결정을 뒤집을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치준비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각국 대표들을 일일이 만나 '말레이시아보다 장점이 더 많은 한국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내세워 설득을 하였습니다.

유치 희망국들의 유치제안 발표가 끝난 다음 실시한 투표 결과, "2011년 WSAVA 세계대회 개최지는 KOREA!" 압도적인 표차로 WSAVA 본부 결정을 뒤집는 이변이 일어난 결과에 모두 놀랐습니다. 그간 우리 유치준비위원회는 WSAVA 본부의 사전 개최지 결정에 대해 긴급

대책 회의만도 수차례, 우리나라의 단점이라는 지적을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치밀한 사전준비가 적중했었습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내외 많은 분들, 특히 현장에서 수고하신 유치준비단과 함께 한마음 한뜻의 열망과 열정이 빛을 발휘해 벼랑 끝 절망을 극복하고 짜릿한 희열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2011년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세계대회 우리나라 개최는 전 세계 수많은 수의사들과 관련 산업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78여 가입회원국 수의사들이 함께 만나 상호 격려하고, 우정을 나누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교류하고,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지역 반려동물 수의사연합회인 '제3회 아시아반려동물수의사회 총회(3rd Federation of Asian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Congress, FASAVA Congress)'와 동시에 개최를 하므로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면 참가자들의 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역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빨리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극히 일부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직 '개를 먹은 음식문화'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지 않은 동물학대국'이란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직위원회는 WSAVA 2011 세계대회를 통해 사람과 동물 사

제 언 _提 言

이의 소중한 유대관계를 의학적으로 보호,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즉 수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동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법정전염병인 광견병 등 효율적인 인수공통질병(zoonosis) 근절에 이바지하며, 사람과 반려동물의 다정다감한 유대관계를 통한 생명존중 정신의 실현을 위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가 규정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국가로 이미지를 바꾸고, 신성장동력 관광산업(新成長動力 觀光産業)에 기여는 물론, 기타 산업에 파급된 경제적 효과는 국내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개최는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2011년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세계대회'와 '제3회 아시아반려동물수의사회 총회'에 정부와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 및 기업, 그리고 수의사와 수의 관련 단체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희망의 꽃을 함께 피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내용 문의 : 011-9261-7582, 강종일)☎